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무위행은 진실행

학승이 물었다.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대해야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진주(陳州)에서 온 사람은 허주(許州)의 소식을 알 수 없어.”

問 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 未審將什麼對 師云人從陳州來 不得許州信

길에서 도인을 만나 뭔가 뜻을 통해보려면 말이나 침묵 등으로 응대해서는 안 된다. 말이나 침묵으로는 진정한 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응대하면 될까? 학인의 질문에 조주 스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진주에서 살던 사람은 허주에 대한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인이 아니면 도인들의 대화를 모른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전문 용어가 있고 전문기술이 있어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다 내려다 본 사람과 산 아래에서 땀도는 사람이 어찌 대화를 통한 것이며 뜻이 통하겠는가. 도의 대답은 즉문즉답이다. 당시 상황에 따라 문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 또한 가르쳐주어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이익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입을 여는 것은 유위입니다. 무엇이 무위입니까?”
조주 스님은 손을 보이면서 말했다.
“이것이 무위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유위입니다. 무엇이 무위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위이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유위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래, 유위이다.”

問 開口是有爲 如何是無爲 師以手示之云 者箇是無爲 云者箇是有爲 如何是無爲 師云無爲 云者箇是有爲 師云是有爲

무위(無爲)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무위(無爲)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전혀 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무위이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해를 주는 일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위이다. 무위행(無爲行)은 진실행(眞實行)이다. 만약 무위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가히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 뒤라고 입을 열어 말하면 그것은 곧 유위(有爲)가 된

다. 설사 선사가 빈손을 보았다 해도 그것은 유위이다. 또한 “무위!”하고 무위라는 문자를 외쳐도 그것 역시 유위이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유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위인가? 만일 나에게 무위를 묻는다면 묻는 자에게 주장자 일방(一榜)을 내겠다.

조주 선사가 문하 대중에게 보였다.
“나는 부처(佛)라는 한 글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은 사람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부처야, 부처.”

師示衆云 佛之一字吾不喜聞 問 和尚還爲人也無 師云佛佛

선(禪)을 알고 도(道)를 아는 자라면 부처라는 이름을 싫어한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중분하다. 도인, 선사, 성인, 부처 등은 모두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을 교화하는 선사라면 스스로를 부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망하고 만다. 남이 부처라고 불러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자기는 자신은 부처라고 말하는 자들이 선사들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만일 현자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겠습니다 (미린다평하)

30년 전의 일이다. 서울 시내 어느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 교무회의를 처음 경험한 것이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무주임 선생님 순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끝!”이었다. 정말 회의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의 교단(敎壇)문화가 걱정스러웠다.

한편,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Mahābhārata>에 나오는 회의 장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일 아랫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으로 발언권을 갖는다.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발언하게 되면, 낮은 사람들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카스트가 있는 계급사회지만, 이런 면이 있는 나라가 또 인도이다.

이러한 전통에 주목한 분이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이다. 인도가 낳은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로서, 후생경제학 분야에서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1998년에 동양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다. <논쟁하기 좋아하는 인도인들 The Argumentative Indian>(이경남 옮김, <살아있는 인도>, 청림출판)은 바로 그렇게 토론하기 좋아하는 인도의 전통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 토론과 논쟁의 전통 하나 추가요! 바로 나가세나 스님과 밀린다왕 사이의 대론(對論)이다. 서기 150년 전, 서북 인도를 지배하던 그리스의 왕 미린다(그리스 명 : 메난드로스)가 당시의 학승 나가세나 존자를 찾아가서 토론을 벌인다. <미린다평하 Milinda-pañha(彌蘭陀王問經)>가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 도입 부분에서, 나가세나 스님은 토론을 하자고 찾아온 왕에게 묻는다 : “대왕이여, 만일 현자(賢者)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자(王者)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지 않겠습니다.”(서경수 옮김, 동국역경원, 48쪽)

현자 vs 왕자? 이렇게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도인의 사유이다. (마하바라타)에서는 그것을, 해탈법(mokṣa-dharma) vs 왕법(rāja-dharma)으로 말한다. 나가세나 존자가 말하는 현자는 해탈법의 추구자이며, 왕자는 왕법의 추

구자이다. 현자의 길을 걷는 나야 당연히 해탈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왕법을 추구하는 왕자니까 대론 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리이러한 벌을 주어라”(49쪽)라고, 왕법에 따라서 나를 다루려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대론은 못하겠습니다. ... 이런 이야기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왕법의 본질이다. 일찍이 싯다르타 태자는 ‘몽둥이(danḍa)’야말로 왕법의 핵심이라 간파했음을 <붓다차리타Buddhacarita(佛所行讚)>은 전해주지 않던가. 그런 몽둥이를 숨긴 채, 권력의 상징인 제복



그림 · 박구원

을 차려 입고서 토론을 하겠다면, 이미 평등한 토론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힘 있는 자가 잠시, 그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

계급장을 떼어놓게 되면 현자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밀린다왕은, 비록 왕이지만 지금 이 대론에서는 “비판받고, 수정받고, 반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내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왕자의 권력이나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성이라도 내게 되면, 어느덧 왕자의 대론으로 떨어지게 되리라. 더이상 현자의 대론은 불가능해진다. 어쩌면 대론의 지속 역시 어려울 것일까?

30년 세월이 흘렀다. 내가 교생 나갔던 그 중학교 교무실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이제는 현자의 대론을 하고 있을까? 왕자의 명령 전달로 끝나는 회의(?)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26>

일체 현상 끊임없이 생멸... 영원불멸은 없다

사법인-① 제행무상

사법인은 부처님이 깨달은 인간 세계의 진실로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일체개고(一切皆苦)·제법무아(諸法無我)·열반적정(涅槃寂靜)의 네 가지 항목을 가리킨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무상·고·무아·열반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 이 중 일체개고를 뺀 세 항목이 삼법인이므로 사법인은 삼법인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법인의 첫 번째 항목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제행은 생멸변화하는 일체의 현상법을 말하며, 유(有)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유역시 현상을 뜻하는 말로, 원인과 조건에 따라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원인과 조건이란 인연을 말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은 무상을 뜻한다.

제행무상의 ‘행(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行)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는 무상천류(無常遷流)의 뜻으로, 사물이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상에도 넓고 좁은 의미가 있기 마련이다. 이 중 제행무상의 행이 가장 넓은 의미의 행을 의미하고, 오온의 행이 그 다음이고,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에 나오는

행이 가장 좁은 의미를 지닌 행이다. 제행무상의 행은 현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온의 행은뿐만 아니라 오온 전체가 ‘행’이 된다. 따라서 제행무상 속에 오온이 모두 포함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넓은 뜻을 지닌 오온의 행은 행작(行作), 즉 작용을 가리키는 말로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데, 오온의 수온·상온·식온이 갖고 있는 작용을 제외하고 마음의 작용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의미인 십이연기의 두 번째 항목으로써의 행은 업(業; karma)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신·구·의에 의한 선악의 행위를 가리키는 행이다. 따라서 제행무상의 행은 불교교리에서 말하는 행의 가장 뒷자리를 차지하는 광의(廣義)의 행이 된다.

제행무상의 본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나고 멸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영원불멸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전 속에 ‘무상이기 때문에 고(苦)이다’ 혹은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이다’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는 것처럼, 고와 무아의 이유로서 무상이 설해져 왔다.

무상의 실질을 무상관(無常觀)이라고 하는 데, 무상관이 설명되는 의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종교심을 일으키게 된다. 두 번째는 무상을 관함으로써 집착과 교만의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재산이나 지위, 명예도 언제 악화되거나 잃게 될지 모른다. 무상의 참모습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 등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른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겸허함과 배려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무상관에 의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귀중히 여겨, 노력정진하게 된다. 부처님이 입멸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에도 ‘제행은 쇠멸무상(衰滅無常)의 법이다. 너희들은 결코 방일(放逸)치 말고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전통적으로 무상이라는 말에는 노(老)·병(病)·사(死) 등과 같이 사태가 나쁘게 변화하는 비관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무상에는 좋게 변화하는 현상도 포함돼 있다. 무상이기 때문에 슬픈 일도 일어나지만, 무상이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할 상태로 바뀌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고통과 번뇌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제행무상이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바탕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本지기자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자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중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중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중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중비 없습니다.
- 출가 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곡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위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땀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위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른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피부를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음(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칙위선 “열침”이 땀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치유 되어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KFDA, KETI, EMD, LIG, ISO 9001, ISO 13485, HACCP, GMP, CE, FDA, NCC, KC, PSE, RoHS, REACH, EN71, EN60950, EN60335, EN60598, EN60730, EN60825, EN60947, EN60950, EN60959, EN60960, EN60961, EN60962, EN60963, EN60964, EN60965, EN60966, EN60967, EN60968, EN60969, EN60970, EN60971, EN60972, EN60973, EN60974, EN60975, EN60976, EN60977, EN60978, EN60979, EN60980, EN60981, EN60982, EN60983, EN60984, EN60985, EN60986, EN60987, EN60988, EN60989, EN60990, EN60991, EN60992, EN60993, EN60994, EN60995, EN60996, EN60997, EN60998, EN60999, EN61000, EN61001, EN61002, EN61003, EN61004, EN61005, EN61006, EN61007, EN61008, EN61009, EN61010, EN61011, EN61012, EN61013, EN61014, EN61015, EN61016, EN61017, EN61018, EN61019, EN61020, EN61021, EN61022, EN61023, EN61024, EN61025, EN61026, EN61027, EN61028, EN61029, EN61030, EN61031, EN61032, EN61033, EN61034, EN61035, EN61036, EN61037, EN61038, EN61039, EN61040, EN61041, EN61042, EN61043, EN61044, EN61045, EN61046, EN61047, EN61048, EN61049, EN61050, EN61051, EN61052, EN61053, EN61054, EN61055, EN61056, EN61057, EN61058, EN61059, EN61060, EN61061, EN61062, EN61063, EN61064, EN61065, EN61066, EN61067, EN61068, EN61069, EN61070, EN61071, EN61072, EN61073, EN61074, EN61075, EN61076, EN61077, EN61078, EN61079, EN61080, EN61081, EN61082, EN61083, EN61084, EN61085, EN61086, EN61087, EN61088, EN61089, EN61090, EN61091, EN61092, EN61093, EN61094, EN61095, EN61096, EN61097, EN61098, EN61099, EN61100, EN61101, EN61102, EN61103, EN61104, EN61105, EN61106, EN61107, EN61108, EN61109, EN61110, EN61111, EN61112, EN61113, EN61114, EN61115, EN61116, EN61117, EN61118, EN61119, EN61120, EN61121, EN61122, EN61123, EN61124, EN61125, EN61126, EN61127, EN61128, EN61129, EN61130, EN61131, EN61132, EN61133, EN61134, EN61135, EN61136, EN61137, EN61138, EN61139, EN61140, EN61141, EN61142, EN61143, EN61144, EN61145, EN61146, EN61147, EN61148, EN61149, EN61150, EN61151, EN61152, EN61153, EN61154, EN61155, EN61156, EN61157, EN61158, EN61159, EN61160, EN61161, EN61162, EN61163, EN61164, EN61165, EN61166, EN61167, EN61168, EN61169, EN61170, EN61171, EN61172, EN61173, EN61174, EN61175, EN61176, EN61177, EN61178, EN61179, EN61180, EN61181, EN61182, EN61183, EN61184, EN61185, EN61186, EN61187, EN61188, EN61189, EN61190, EN61191, EN61192, EN61193, EN61194, EN61195, EN61196, EN61197, EN61198, EN61199, EN61200, EN61201, EN61202, EN61203, EN61204, EN61205, EN61206, EN61207, EN61208, EN61209, EN61210, EN61211, EN61212, EN61213, EN61214, EN61215, EN61216, EN61217, EN61218, EN61219, EN61220, EN61221, EN61222, EN61223, EN61224, EN61225, EN61226, EN61227, EN61228, EN61229, EN61230, EN61231, EN61232, EN61233, EN61234, EN61235, EN61236, EN61237, EN61238, EN61239, EN61240, EN61241, EN61242, EN61243, EN61244, EN61245, EN61246, EN61247, EN61248, EN61249, EN61250, EN61251, EN61252, EN61253, EN61254, EN61255, EN61256, EN61257, EN61258, EN61259, EN61260, EN61261, EN61262, EN61263, EN61264, EN61265, EN61266, EN61267, EN61268, EN61269, EN61270, EN61271, EN61272, EN61273, EN61274, EN61275, EN61276, EN61277, EN61278, EN61279, EN61280, EN61281, EN61282, EN61283, EN61284, EN61285, EN61286, EN61287, EN61288, EN61289, EN61290, EN61291, EN61292, EN61293, EN61294, EN61295, EN61296, EN61297, EN61298, EN61299, EN61300, EN61301, EN61302, EN61303, EN61304, EN61305, EN61306, EN61307, EN61308, EN61309, EN61310, EN61311, EN61312, EN61313, EN61314, EN61315, EN61316, EN61317, EN61318, EN61319, EN61320, EN61321, EN61322, EN61323, EN61324, EN61325, EN61326, EN61327, EN61328, EN61329, EN61330, EN61331, EN61332, EN61333, EN61334, EN61335, EN61336, EN61337, EN61338, EN61339, EN61340, EN61341, EN61342, EN61343, EN61344, EN61345, EN61346, EN61347, EN61348, EN61349, EN61350, EN61351, EN61352, EN61353, EN61354, EN61355, EN61356, EN61357, EN61358, EN61359, EN61360, EN61361, EN61362, EN61363, EN61364, EN61365, EN61366, EN61367, EN61368, EN61369, EN61370, EN61371, EN61372, EN61373, EN61374, EN61375, EN61376, EN61377, EN61378, EN61379, EN61380, EN61381, EN61382, EN61383, EN61384, EN61385, EN61386, EN61387, EN61388, EN61389, EN61390, EN61391, EN61392, EN61393, EN61394, EN61395, EN61396, EN61397, EN61398, EN61399, EN61400, EN61401, EN61402, EN61403, EN61404, EN61405, EN61406, EN61407, EN61408, EN61409, EN61410, EN61411, EN61412, EN61413, EN61414, EN61415, EN61416, EN61417, EN61418, EN61419, EN61420, EN61421, EN61422, EN61423, EN61424, EN61425, EN61426, EN61427, EN61428, EN61429, EN61430, EN61431, EN61432, EN61433, EN61434, EN61435, EN61436, EN61437, EN61438, EN61439, EN61440, EN61441, EN61442, EN61443, EN61444, EN61445, EN61446, EN61447, EN61448, EN61449, EN61450, EN61451, EN61452, EN61453, EN61454, EN61455, EN61456, EN61457, EN61458, EN61459, EN61460, EN61461, EN61462, EN61463, EN61464, EN61465, EN61466, EN61467, EN61468, EN61469, EN61470, EN61471, EN61472, EN61473, EN61474, EN61475, EN61476, EN61477, EN61478, EN61479, EN61480, EN61481, EN61482, EN61483, EN61484, EN61485, EN61486, EN61487, EN61488, EN61489, EN61490, EN61491, EN61492, EN61493, EN61494, EN61495, EN61496, EN61497, EN61498, EN61499, EN61500, EN61501, EN61502, EN61503, EN61504, EN61505, EN61506, EN61507, EN61508, EN61509, EN61510, EN61511, EN61512, EN61513, EN61514, EN61515, EN61516, EN61517, EN61518, EN61519, EN61520, EN61521, EN61522, EN61523, EN61524, EN61525, EN61526, EN61527, EN61528, EN61529, EN61530, EN61531, EN61532, EN61533, EN61534, EN61535, EN61536, EN61537, EN61538, EN61539, EN61540, EN61541, EN61542, EN61543, EN61544, EN61545, EN61546, EN61547, EN61548, EN61549, EN61550, EN61551, EN61552, EN61553, EN61554, EN61555, EN61556, EN61557, EN61558, EN61559, EN61560, EN61561, EN61562, EN61563, EN61564, EN61565, EN61566, EN61567, EN61568, EN61569, EN61570, EN61571, EN61572, EN61573, EN61574, EN61575, EN61576, EN61577, EN61578, EN61579, EN61580, EN61581, EN61582, EN61583, EN61584, EN61585, EN61586, EN61587, EN61588, EN61589, EN61590, EN61591, EN61592, EN61593, EN61594, EN61595, EN61596, EN61597, EN61598, EN61599, EN61600, EN61601, EN61602, EN61603, EN61604, EN61605, EN61606, EN61607, EN61608, EN61609, EN61610, EN61611, EN61612, EN61613, EN61614, EN61615, EN61616, EN61617, EN61618, EN61619, EN61620, EN61621, EN61622, EN61623, EN61624, EN61625, EN61626, EN61627, EN61628, EN61629, EN61630, EN61631, EN61632, EN61633, EN61634, EN61635, EN61636, EN61637, EN61638, EN61639, EN61640, EN61641, EN61642, EN61643, EN61644, EN61645, EN61646, EN61647, EN61648, EN61649, EN61650, EN61651, EN61652, EN61653, EN61654, EN61655, EN61656, EN61657, EN61658, EN61659, EN61660, EN61661, EN61662, EN61663, EN61664, EN61665, EN61666, EN61667, EN61668, EN61669, EN61670, EN61671, EN61672, EN61673, EN61674, EN61675, EN61676, EN61677, EN61678, EN61679, EN61680, EN61681, EN61682, EN61683, EN61684, EN61685, EN61686, EN61687, EN61688, EN61689, EN61690, EN61691, EN61692, EN61693, EN61694, EN61695, EN61696, EN61697, EN61698, EN61699, EN61700, EN61701, EN61702, EN61703, EN61704, EN61705, EN61706, EN61707, EN61708, EN61709, EN61710, EN61711, EN61712, EN61713, EN61714, EN61715, EN61716, EN61717, EN61718, EN61719, EN61720, EN61721, EN61722, EN61723, EN61724, EN61725, EN61726, EN61727, EN61728, EN61729, EN61730, EN61731, EN61732, EN61733, EN61734, EN61735, EN61736, EN61737, EN61738, EN61739, EN61740, EN61741, EN61742, EN61743, EN61744, EN61745, EN61746, EN61747, EN61748, EN61749, EN61750, EN61751, EN61752, EN61753, EN61754, EN61755, EN61756, EN61757, EN61758, EN61759, EN61760, EN61761, EN61762, EN61763, EN61764, EN61765, EN61766, EN61767, EN61768, EN61769, EN61770, EN61771, EN61772, EN61773, EN61774, EN61775, EN61776, EN61777, EN61778, EN61779, EN61780, EN61781, EN61782, EN61783, EN61784, EN61785, EN61786, EN61787, EN61788, EN61789, EN61790, EN61791, EN61792, EN61793, EN61794, EN61795, EN61796, EN61797, EN61798, EN61799, EN61800, EN61801, EN61802, EN61803, EN61804, EN61805, EN61806, EN61807, EN61808, EN61809, EN61810, EN61811, EN61812, EN61813, EN61814, EN61815, EN61816, EN61817, EN61818, EN61819, EN61820, EN61821, EN61822, EN61823, EN61824, EN61825, EN61826, EN61827, EN61828, EN61829, EN61830, EN61831, EN61832, EN61833, EN61834, EN61835, EN61836, EN61837, EN61838, EN61839, EN61840, EN61841, EN61842, EN61843, EN61844, EN61845, EN61846, EN61847, EN61848, EN61849, EN61850, EN61851, EN61852, EN61853, EN61854, EN61855, EN61856, EN61857, EN61858, EN61859, EN61860, EN61861, EN61862, EN61863, EN61864, EN61865, EN61866, EN61867, EN61868, EN61869, EN61870, EN61871, EN61872, EN61873, EN61874, EN61875, EN61876, EN61877, EN61878, EN61879, EN61880, EN61881, EN61882, EN61883, EN61884, EN61885, EN61886, EN61887, EN61888, EN61889, EN61890, EN61891, EN61892, EN61893, EN61894, EN61895, EN61896, EN61897, EN61898, EN61899, EN61900, EN61901, EN61902, EN61903, EN61904, EN61905, EN61906, EN61907, EN61908, EN61909, EN61910, EN61911, EN61912, EN61913, EN61914, EN61915, EN61916, EN61917, EN61918, EN61919, EN61920, EN61921, EN61922, EN6